

문화플러스

# 정읍시, 국제화 교류 활성화

## 중국 서주시와 위해시·일본 나리타시와 우호협력 사업 등 강화

백창민 시의원, 결산검사대표선임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백창민 의원(사진)과 민간인 출신으로 강현석, 허현기 위원 등 총 3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은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속비 명세서 및 사기이월비 결산 등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백창민 의원은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을 심의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등 김제시 재정운영상태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졌다"고 각오를 전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 김제보건소, 일반음식점주 교육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와 한국의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김제시지부(지부장 나병문)는 15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준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의식업중앙회 전북도지회에서 약 600여명 영업자에 대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일반음식점 친절서비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법 해설에 대한 유용한 내용을 교육하였다.

또한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接客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고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한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패 수여와 주방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관리,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에 대한 의식업 경영자 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김제시보건소는 매년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식중독 발생 없는 건강한 김제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외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교월동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장화주유소 앞을 비롯한 상습 무단투기지역 5개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도활동을 펼쳤다.

교월동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이 함께한 이날 활동은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들로 인한 불쾌과 각종 전염병 발생위험을 해소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조종욱 주민자치위원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무단투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문 교월동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규격봉투 사용 등의 주민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성숙한 주민의식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개최하는 월례회의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교월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 왔으며, 지역사랑에만 머물지 않고 나라사랑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태극기 시범거리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가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올해도 국제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급변하는 세계조류에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세계 속 정읍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교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문화, 예술과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협력 증진을 꾀해 나가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한 서주시와의 활발한 교류에 나선다. 8월 서주시 체육(축구)교류단이 정읍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정읍시와 서주시는 격년(隔年)으로 체육교류단이 양 시를 방문 친선 경기를 통해 우의를 증진한 것은 물론 문화와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9월에는 서주시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이 작품과 함께 정읍을 방문, 전시

회를 가질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 협의의 중에 있다. 10월에는 정읍시 방문단이 '서주시 한문화관광제' 축하 사절단으로 방문, 양 도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본 나리타시와의 교류에도 힘을 쏟는다. 나리타시와 정읍시는 2002년 자매결연이후 매년 중고등학교 교환 학생 등이 민간교류와 함께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꾸준한 국제교류를 펼쳐오고 있다.

올해도 8월에는 나리타시, 12월에는 정읍시의 홀스데이(중·고등학교생) 방문단이 양 시를 방문하고 정읍시립국악단이 9월에 열리는 나리타시 국제시민 페스티벌에 참가,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또 '문화역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와 강소성 양주시와의 교류 확대에도 나선

다. 먼저 시는 5월 중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공룡점(위해시 유공도 갑오전쟁박물관)이 있는 위해시를 방문, 동학 관광분야 업무 협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유공도 갑오전쟁박물관 내 동학관련 상설전시 공간 마련, 내장산 단풍나무 위해시 기증 등 양시간 관광교류 상품 개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운 최치원 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가교로 양주시와의 우호 교류 체결에 나선다. 양주시는 최치원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최치원을 추앙하고 있고 정읍시는 통일시대 최치원이 태인현감을 역임, 그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곳이다. 양시는 이러한 공통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교류를 확대, 서로의 관광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발전 방향 논의, 한국어 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다양한 토론회를 하였다.

## 김제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토론회

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양혜완)는 지난 14일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자녀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사업 계획 "센터" 운영에 대한 발전 방향 논의, 한국어 교육, 자녀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다문화 인식 개선사

업 등 다양한 토론회를 하였다.

특히 김제시 특화사업인 다문화가족 한미당 잔치, 전통혼례, 친정언니 맺어주기 교육정보네기, 한국어교육 거점센터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까지도 토론회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했다. 한미당 잔치는 전통혼례와 함께 추진하였으나 분리해서 전통혼례 2쌍은 지정선속제시 당초 1회에서 2회를 늘려 3회 추진하기로 했으며, 2015년도까지 "친정 언

니니" 맺어주기 사업은 먼저 결혼한 이주여성의 "친정 언니" 맺어주기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도출하였다. 또한 처음 실시하는 "행복한 다문화 축구교실"도 (사)행복한가정민들기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다문화이슬림 문화사업인 "밸리댄스"를 "태권도 교실" 운영으로 품격을 한층 높이기로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은 지난 15일 산내면 주민들과 수산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치어를 방류했다.

## 민물고기시험장 은어치어 방류

### 정읍산내면 매죽천에 4만 5천마리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험장(이하 민물고기 시험장)은 지난 15일 산내면 주민들과 수산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정읍시 산내면 구월초 테마공원 주변 매죽천에 은어치어 4만 5천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사라지고 있는 은어 자원을 복원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방류한 은어 치어는 지난 해 10월에 어미고기에서 인공 채란 후 자어, 치어 사육관리를 통해 7~8cm 크기로 성장시킨 건강한 종묘이다.

민물고기 시험장 관계자는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류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사라졌던 은어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어획량이 증가 하는 등 방류로 인한 생태계 복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은어는 가을에 수정·부화해 바다로 내려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3~4월경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하천의 상류에 서식하는 단년생 어종이다.

고기의 맛이 담백할 뿐 아니라 비린내가 나지 않고 특유의 수비향이 있어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기도 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접수

### 군, 6개 부문 선정

부안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찾아 시상하는 2016년도 부안군민대상 후보자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수상부문은 효열, 산업, 공익, 교육, 문화, 체육 등 6개 부문으로 수상자격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군민이면 누구나 수상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관·단체장, 학교장, 군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 군민

15명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한 추천 방식이다.

추천서는 접수처인 군청 자치행정과(☎ 063-580-4277)와 읍·면에서 교부하며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kr)를 통한 출력할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지확인과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5월 6일 열리는 제회 부안실속제 개막식에서 가진다.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군민대상 메달과 상패가 수여된다.

/부안=이옥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GIFT SET 1.00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0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00 | 750ml 1ea/12%

GIFT SET 4.00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0 | 375ml 5ea/13%

GIFT SET 6.00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860  
www.gangsanwine.com

###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병주  
Premium  
Obdi Wine